



3~6학년 길잡이

# 브이를 찾습니다

김성민 동시집 | 안경미 그림 | 창비 2017

## 『브이를 찾습니다』를 한 권 읽기 도서로 선정한 이유

### 뭐가 될까?

아이들에게 어른들은, 아니 이 세상은 묻는다. “뭘 좋아하니?” “뭐 할래?” “뭐가 될래?”라고. 그런 말을 들은 아이들의 마음은 어떨까? 뭐가 되고 싶은지 잘 모르겠는데 자꾸만 뭐가 되라하고, 좋아하는 것을 찾아 집중하라 하고, 어떻게든 ‘상위권’에 있어야 한다고 다그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? 아이들의 진짜 마음을 놓치고 싶지 않을 때, 그 마음을 담은 작품을 찾아 읽고 싶을 때, 이 시집을 가만히 펼쳐 보자. 「커서」 「상위권」 「걸렸다고 생각될 때」 「토끼」를 아이들과 함께 읽어 보자. 아이들이 답답했던 마음을 열고 그들의 말과 생각을 쏟아 낼 것이다. 그리고 나서 흥분해진 마음으로 운동장을 향해 달려 나가는 순간의 열망을 담은 「축구」도 읽고, 밤하늘 별뿔을 함께 보러 가자는 「별뿔」까지 함께 읽으며 시가 낸 길을 따라가 보는 거다. 그러다 보면 「나비 울음」 「나비 효과」처럼 보이지 않던 낯선 장면들도 만날 수 있을 것이다. 시 한 편 한 편을 오랫동안 음미하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책이다.

### 동시 안에 머물기

『브이를 찾습니다』 속 동시들에는 시 안에 오래 머물 수 있게 하는 힘이 있다. 「중력분과 박력분」의 화자는 슈퍼에서 중력분 밀가루를 보고 지구가 우리를 당기는 힘인 ‘중력’을 떠올린다. 웬지 좋아하는 친구에게 중력분을 살짝 뿌려 보고 싶어진다. 그런가 하면 옆에 있는 박력분을 보고 자기한테 뿌려야 할 가루 같단다. 귀여운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씩 웃는 주인공은 시를 읽는 어린이 독자의 마음도 설레게 할 만하다. 유쾌하고 발랄한 동시와 더불어 시 읽기의 감동을 주는 시도 많다. “세상에는 고요가 아니면 듣지 못할 소리가 참 많다”는 「고요」나, “겨울 같은 건 알아서 견디는 것, 봄에 다시 보자는 약속 같은 건 말없이도 하는 거”라고 속삭이는 「약속」을 아이들과 함께 읽어 보자. 눈 밝은 어린이 독자는 시와 동시의 경계를 훌쩍 뛰어넘은 시들을 읽으며 세상과 만날 수 있을 것이다.

## 수업의 개관

가 동시집: 『브이를 찾습니다』(김성민 동시집, 안경미 그림, 창비 2017)

나 성취 기준: 3~4학년 국어

[문학①] 시각이나 청각 등 감각적 표현에 주목하며 작품을 감상한다.

[문학④] 작품을 듣거나 읽거나 보고 떠오른 느낌과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한다.

다 수업 속으로

차시	주요 학습 내용 및 활동
1 - 2	<p>▶ 함께 시를 감상해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누군가를 좋아해 본 경험 이야기하기</li> <li>• 「중력분과 박력분」 함께 읽기</li> <li>• 이 시에서 재미있는 점 이야기 나누기</li> <li>• ‘중력분’과 ‘박력분’의 뜻 알아보기</li> <li>• ‘중력분’과 ‘박력분’을 다른 낱말로 바꾸어 보기</li> <li>• 내가 좋아하는 친구에게 고백하는 글쓰기</li> </ul> <p>활동1 내 마음을 고백하는 글쓰기</p>
3 - 4	<p>▶ ‘나의 시’를 뽑아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『브이를 찾습니다』 함께 읽기</li> <li>• 기억에 남는 시 이야기 나누기</li> <li>• 마음에 드는 시 세 편 고르기</li> <li>• 세 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시 한 편 고르기</li> <li>• 고른 시를 친구들 앞에서 낭독하고 뽑은 이유 말하기</li> <li>• 친구들이 낭독한 시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시를 ‘우리 반 시’로 뽑아 보기</li> </ul> <p>활동2 ‘나의 시’를 뽑아 보기</p>
5 - 6	<p>▶ 시로 퀴즈를 만들어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시집에서 퀴즈로 낼 만한 시 고르기</li> <li>• 제목 알아맞히기</li> <li>• 괄호 안에 들어갈 말 짐작해 보기</li> </ul> <p>활동3 시를 읽고 제목을 맞춰 봐요</p>
7 - 8	<p>▶ ‘나만의 시집’을 만들어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자신이 만들 시집의 제목을 짓고 표지 꾸미기</li> <li>• 그동안 함께 읽었던 시 중에서 마음에 드는 시를 옮겨 쓰기</li> <li>• 시화로 꾸미기</li> <li>• ‘나만의 시집’ 전시회 열기</li> </ul>

# 내 마음을 고백합니다

( )학년 ( )반 이름 ( )

- ◆ 여러분은 좋아하는 남자 친구나 여자 친구가 있나요? 친구에게 좋아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고백하는 글을 써 봅시다.

---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

# ‘나의 시’를 뽑아요

( )학년 ( )반 이름 ( )

시집에서 나의 으뜸시 한 편을 골라  
옯겨 써 봅시다.

왜 이 시를 고르게 되었나요?  
고른 이유를 자세리 써 봅시다.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# 시 제목을 맞춰 봅시다

( )학년 ( )반 이름 ( )

[활동 예]

( )	( )
꼬끼리는 옛날 옛적 공룡이 사라진 이유를 곱씹고 있어요  먹고 있으면서도 먹을 걱정해야 하는 내 목숨은 너무 무거워  나도 나비처럼 먹고살 수 있다면  두 귀는 날개가 될까 내 코는 가느다란 입이 될까 꽃잎 위에 사뿐히 앉을 수도 있을까  꼬끼리는 자꾸만 눈으로 나비를 쫓고 있어요.	강가에 선 아버지가  수많은 돌맹이 가운데  적당히 묵직하고 둥글고 납작한 돌맹이 하나 골라  내 손에 쥐여 주었다 이갓 강 하나쯤 너끈히 건너갈 것 같은 돌맹이였다.
내가 짐작한 시 제목:	내가 짐작한 시 제목:
이유:	이유: